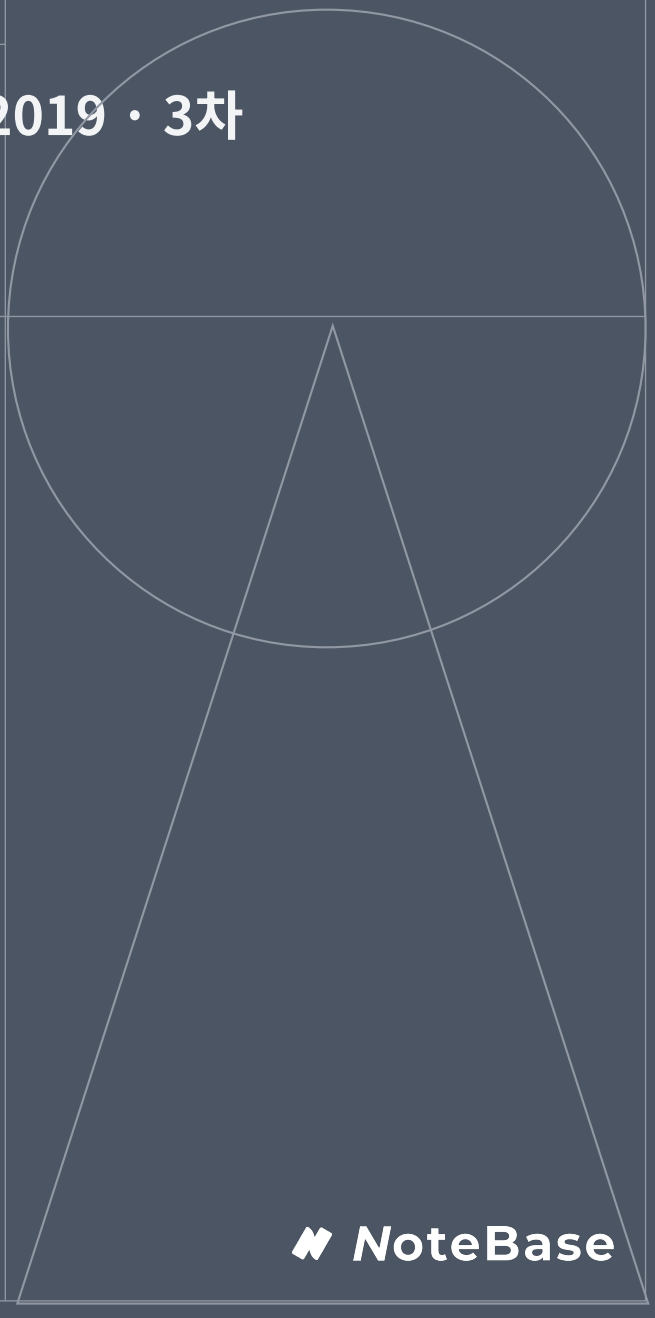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9 · 3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9 · 3차

공무원/해경/순경 · 국어 · 2019 · 3차

문 1. 다음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유 경장의 말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파출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민원인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주시겠습니까?
<보기>
㉠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려는 표현이다.
㉡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는 표현이다.
㉢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 화자가 청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장의 형식과 실제 발화 기능이 일치하는지, 간접적인 요청 표현이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접 표현은 화자의 의도를 문장 형식에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고, 간접 표현은 문장 형식과 실제 발화 기능을 달리하여 의도를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발화는 의문문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의 기능을 한다. 또한 '죄송하지만'과 '해주시겠습니까?'를 사용하여 명령을 완곡하게 전달하므로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은 맞지만 ㉡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이 발화는 의문문 형식으로 요청 기능을 수행하므로 발화 형식과 발화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 '㉠, ㉡'은 '㉠, ㉣'로 고쳐야 한다.

② X
㉡과 ㉢이 모두 틀리다. 의문문 형식과 요청 기능이 일치하지 않으며, 화자는 '조용히 해 달라'는 의도를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주시겠습니까?'라고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 ㉢'은 '㉠, ㉣'로 고쳐야 한다.

③ X
㉣은 맞지만 ㉢은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화자의 실제 의도는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이지만 그 의도를 직접 명령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 ㉣'은 '㉠, ㉣'로 고쳐야 한다.

④ O
㉠과 ㉣이 모두 맞다. 사과 표현과 의문문 형식으로 요청을 완곡하게 하여 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며, 실제 발화 기능은 민원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오답 포인트

'해주시겠습니까?'가 의문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화 기능도 질문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의 목적은 상대의 의사를 묻는 데 있지 않고 행동을 요구하는 데 있으므로 실제 기능은 요청이다. 또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서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청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종결 형식이 평서문·의문문·명령문 중 무엇인지 확인한 뒤, 화자가 실제로 상대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찾는다. 형식이 의문문인데 실제 목적이 행동 요청이면 간접 표현이며, 사과·가능 여부 질문·완곡한 종결 표현이 함께 쓰이면 청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암기 포인트

의문문 형식으로 행동을 요구하면 '형식은 질문, 기능은 요청'인 간접 표현이다.

NoteBase

문 2. 해양경찰청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 업무 관련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일상용어나 법령 용어를 검토하여 국립국어원에 질의,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해양경찰청에서 제시한 100개 용어 중 일본어 20개는 순화용어로 의무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59개와 어려운 한자어 21개는 순화용어 사용이 권장되었다.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우리말 다듬기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일반적으로 우리말 다듬기는 아래의 세 범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쉬운 우리말 쓰기 :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 순수 우리말 쓰기 :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
- 바른 우리말 쓰기 :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사투리를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① '지짐이'를 '부침개'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②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③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④ '비까번쩍하다'를 '번쩍번쩍하다'로 순화하여 사용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리말 다듬기의 세 범주인 쉬운 우리말 쓰기, 순수 우리말 쓰기, 바른 우리말 쓰기를 실제 순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쉬운 우리말 쓰기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다. 순수 우리말 쓰기는 일본어 투 용어나 외래어·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사투리를 규정에 맞게 고치는 것이다. 이미 쓰이는 우리말을 뜻이 비슷한 다른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 세 범주의 순화 사례가 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짐이'를 '부침개'로 순화한다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지짐이'와 '부침개'는 모두 우리말이므로, 올바르게는 이를 일본어 투·외래어·어법 오류·사투리를 다듬은 사례로 볼 수 없다.
② O. 한자어인 '대합실'을 뜻이 바로 드러나는 '맞이방'으로 바꾸었으므로 쉬운 우리말 쓰기의 사례이다.
③ O. '시건장치'를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잠금장치'로 바꾸었으므로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한자어를 다듬은 사례이다.
④ O. 일본어 투 표현인 '비까번쩍하다'를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번쩍번쩍하다'로 바꾸었으므로 순수 우리말 쓰기의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바꾼 뒤의 말인 '부침개'가 자연스러운 우리말이라는 점 때문에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다듬기에서는 결과어만 볼 것이 아니라 원래 말에 한자어의 난해함, 일본어 투·외래어성, 어법 오류나 사투리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래 표현의 문제를 먼저 찾는다. 어려운 한자어이면 '쉬운 우리말', 일본어 투·외래어이면 '순수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사투리이면 '바른 우리말'에 해당한다. 원래 말과 바꾼 말이 모두 정상적인 우리말이면 순화 사례인지 다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어려운 한자어는 쉽게, 일본어 투·외래어는 우리말로, 비표준 표현은 바르게 다듬는다.

NoteBase

문 3. 해양경찰청에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양경찰 업무 관련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일상용어나 법령 용어를 검토하여 국립국어원에 질의, 회신을 받았다. 그 결과 해양경찰청에서 제시한 100개 용어 중 일본어 20개는 순화용어로 의무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어 59개와 어려운 한자어 21개는 순화용어 사용이 권장되었다.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양경찰청에서 제시한 다음 밑줄 친 순화대상 검토 용어와 <보기>를 참조하여 국립국어원의 순화용어 의무사용 또는 사용권장 순화용어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국립국어원 우리말다듬기 순화용어에 의함)

<보기>
일반적으로 우리말 다듬기는 아래의 세 범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쉬운 우리말 쓰기 : 난해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한다.
- 순수 우리말 쓰기 :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
- 바른 우리말 쓰기 :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사투리를 규정에 따라 바르게 고친다.

㉠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적극적인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이 서해5도 어민들의 어획고 증가에 기여했다.
→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적극적인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이 서해5도 어민들의 어획량 증가에 기여했다.

㉡ 이번 불법 외국어선 나포 작전도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오사마리를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 이번 불법 외국어선 나포 작전도 마지막까지 사고 없이 끝맺음을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에 근무하는 차 경사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는지 입회했다.
→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에 근무하는 차 경사는 해양경찰청장 표창 심의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되는지 참관했다.

㉣ 이번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든 수색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 이번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든 수색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어가 문맥과 우리말 다듬기의 취지에 맞게 대응하는지 판단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례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우리말 다듬기는 어려운 표현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고, 일본어투·외래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며,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이다. 이 문항의 네 쌍은 모두 원래 문장의 뜻을 유지하면서 더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꾼 사례이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0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 '어획고→어획량', ㉡ '오사마리→끝맺음', ㉢ '입회→참관', ㉣ '종지부→마침표'가 모두 문맥에 맞으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1개라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0개, 즉 '없음'이다.
② X — 네 순화어가 모두 적절하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2개라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0개, 즉 '없음'이다.
③ X — 네 순화어가 모두 적절하므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3개라는 표현은 틀리다. 올바르게는 0개, 즉 '없음'이다.
④ O — '어획고'는 문맥상 '어획량'으로, 일본어 표현인 '오사마리'는 '끝맺음'으로 다듬는 것이 적절하다. 선정 과정을 지켜보는 뜻에서는 '입회'를 '참관'으로, 끝낸다는 비유에서는 '종지부'를 '마침표'로 바꾸는 것도 적절하다.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

오답 포인트

'입회'와 '종지부'가 익숙한 한자어라는 이유만으로 순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문항은 원래 말의 사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화어로 어울리는지를 묻는다. 네 대응을 각각 판정한 뒤 부적절한 사례의 수를 세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쌍에서 바꾼 말이 원래 뜻과 문맥을 유지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부적절한 쌍만 표시하여 마지막에 개수를 센다. 이 문항에서는 네 쌍이 모두 적절하므로 0개에 해당하는 '없음'을 고른다.

암기 포인트

어획고→어획량, 오사마리→끝맺음, 입회→참관, 종지부→마침표: 네 쌍 모두 적절하다.

NoteBase

문 4. 인천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에 근무하는 진 순경이 전화를 사용할 때, 표준 언어 예절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① 아닌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②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③ 지금 안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

④ 잘 알겠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화 상황에 맞는 공손하고 분명한 응대 표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진 순경이 업무 중 전화를 받거나 연결하고, 부재 사실을 알리거나 통화를 끝내는 상황이다. 상대방이 잘못 건 전화에도 완결된 높임 표현으로 차분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핵심 개념

전화 언어 예절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용건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되, 공손하고 완결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잘못 걸려 온 전화에는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처럼 사실을 분명하고 예의 있게 알리는 표현이 적절하다.

적용 기준

전화를 바꾸어 줄 때, 담당자가 없을 때, 통화를 마칠 때에는 각각 상황을 명확히 알리는 공손한 표현을 사용한다. 잘못 걸려 온 전화라고 하더라도 '아닌데요'처럼 퉁명스럽거나 말끝을 흐리는 표현은 피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아닌데요'는 상대방의 질문을 퉁명스럽고 불완전하게 부정하는 느낌을 주므로 표준적인 전화 응대 표현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처럼 공손한 종결형으로 고쳐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② O — 전화를 받을 사람에게 연결하기 전 상대방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공손하게 요청하고, 곧 바꾸어 주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린 표현이다.
③ O — 찾는 사람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돌아온 뒤 전할 말을 묻는 표현이므로 부재 중 전화 응대로 적절하다. 표현을 적을 때에는 '안 계십니다'와 같이 띄어 쓴다.
④ O —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음을 알린 뒤 통화를 끝내겠다는 뜻을 공손하게 밝힌 표현이므로 통화 마무리 표현으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만 보고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그 앞의 '아닌데요'가 공손한 종결 표현이 아니며 퉁명스럽게 들린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화 응대 표현은 상황 전달의 정확성뿐 아니라 문장 전체의 공손성과 완결성을 함께 판단한다. 연결, 부재 안내, 통화 종료 표현은 상대방에게 다음 상황을 분명히 알리는지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잘못 걸린 전화에는 '아닌데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공손하고 완결되게 응대한다.

NoteBase

문 5. 다음 <보기>는 단위어를 사용한 것이다. 모두 합한 수는?

<보기>
㉠ 마늘 한 접
㉡ 바늘 다섯(5) 쌈
㉢ 북어 한 쾌
㉣ 생선 세(3) 두름

① 300
② 270
③ 250
④ 22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전통 단위어인 접·쌈·쾌·두름이 각각 나타내는 수를 알고, 수량을 모두 환산하여 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마늘 한 접은 100개, 바늘 한 쌈은 24개, 북어 한 쾌는 20마리, 생선 한 두름은 20마리이다. 따라서 바늘 다섯 쌈은 $5 \times 24 = 120$, 생선 세 두름은 $3 \times 20 = 60$으로 환산된다.

사용할 계산

각 단위어를 기본 수량으로 바꾼 뒤 모두 더한다. 서로 다른 단위어로 제시된 수를 그대로 더할 수 없으므로 먼저 각 묶음의 실제 수량을 구해야 한다.

계산 과정

㉠ 마늘 한 접: 100
㉡ 바늘 다섯 쌈: $5 \times 24 = 120$
㉢ 북어 한 쾌: 20
㉣ 생선 세 두름: $3 \times 20 = 60$
따라서 전체 수는 $100 + 120 + 20 + 60 = 3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환산한 수량의 합이 300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② X — ‘27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합은 100 + 120 + 20 + 60 = 300이다.
③ X — ‘25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합은 300이다.
④ X — ‘220’은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른 합은 300이다.

오답 포인트

‘다섯 쌈’과 ‘세 두름’에서 5와 3만 더하거나, 쌈·접·쾌·두름의 묶음 수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특히 한 쌈은 24개이고 한 접은 100개라는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위어가 나타내는 기본 수량을 먼저 적고, 앞에 붙은 묶음 수를 곱한 다음 전체를 합산한다.

암기 포인트

접 100, 쌈 24, 쾌 20, 두름 20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보기>의 규정이 가장 바르게 적용된 것은?

<보기>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① 독도: Dok-do
② 반구대: Ban-gudae
③ 독립문: Dok-rip-mun
④ 인왕리: Inwang-ri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발음상 혼동을 막기 위해 음절 경계에 선택적으로 쓰는 붙임표와 다른 규정에 따라 쓰는 붙임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마자 표기만으로 음절의 경계를 달리 파악할 우려가 있으면 그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반구대'는 붙임표가 없을 때 Ban-gu와 Bang-u의 경계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Ban-gudae로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Dok-do'의 붙임표가 잘못 적용되었다. '독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인 '도'가 아니라 섬 이름의 일부이며, 발음상 음절 경계가 혼동되는 경우도 아니다. 올바른 표기는 Dokdo이다.
② O — Bangudae는 Ban-gu와 Bang-u 중 어디에서 음절이 나뉘는지 혼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음절 경계를 밝혀 Ban-gudae로 쓰는 것은 <보기> 규정의 올바른 적용이다.
③ X — 'Dok-rip-mun'은 철자대로 나누어 적은 점이 잘못되었다.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독립문'의 발음 [동님문]을 반영한 올바른 표기는 Dongnimmun이다.
④ X — Inwang-ri의 붙임표는 발음상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구역 단위 '리' 앞에 붙임표를 넣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표기 자체는 Inwang-ri가 맞지만 <보기>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아니다.

오답 포인트

붙임표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보기>의 사례라고 판단하기 쉽다. ①은 섬 이름의 일부인 '도'를 행정 구역 단위처럼 분리한 표기이고, ④는 실제로 행정 구역 단위 '리' 앞에 붙임표를 쓴 표기이다. <보기>가 묻는 것은 오직 발음상 음절 경계의 혼동을 막는 선택적 붙임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붙임표 앞뒤가 어떤 음절로 나뉘는지 혼동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혼동 방지를 위한 선택적 붙임표인지, '도·시·군·구·읍·면·리·동·가' 같은 행정 구역 단위 앞의 붙임표인지 구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발음 혼동 방지 붙임표는 선택 사항이고, 반구대는 Ban-gudae이다. 행정 구역 단위 앞의 붙임표와는 근거가 다르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미법계에서는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배심 재판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보아 왔다. 배심 재판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12명을 배심원으로 뽑아 법정의 심리를 참관하게 한 뒤, 그들로 하여금 사실을 판단하고 법적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들은 비공개로 토의와 투표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평결을 내린다. 이때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여야 하며, 법관은 이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법률적 소양이 없는 배심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법과 유리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견해에 맞서 신선한 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순기능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①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② 평결에 이르는 과정은 공개한다.

③ 법관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한다.

④ 평결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나타난 배심원과 법관의 역할, 평결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배심 재판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을 판단하여 유죄·무죄의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의 토의와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시문에서는 투표 결과가 만장일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제시문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서 배심원을 뽑는다고 하므로, 법률가인 변호사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이해가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평결에 이르는 과정은 공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배심원들이 비공개로 토의와 투표를 진행하여 평결에 이른다.
③ X — 틀린 표현은 '법관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하고, 법관은 그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이다. 올바르게는 제시문에 따르면 배심원의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여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배심원과 법관의 역할을 뒤바꾸거나, '비공개'를 '공개'로, '만장일치'를 '다수결'로 바꾼 표현이 함정이다. 특히 ④는 일반적인 의사 결정 방식에 기대어 읽으면 틀리기 쉽지만, 제시문의 명시적 표현을 따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 독해 문항에서는 각 선지의 주체, 행위, 조건을 본문과 일대일로 대응한다. 이 글에서는 '배심원－사실 판단과 유·무죄 평결－비공개·만장일치'와 '법관－평결을 받아들여 판결'의 대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배심원은 비공개·만장일치로 평결하고, 법관은 그 평결을 받아들여 판결한다.

NoteBase

문 8.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성눈 내린다
12월 썩은 구름들 아래
㉠병실 밖의 아이들은 놀다 간다
성가의 후렴들이 지워지고
산성눈 하얗게 온 세상 덮고 있다
㉡하마터면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캄캄하고 고요하다

그러고 보면 땅이나 하늘
자연은 결코 참을성이 있는 게 아니다
산성눈 한 뼘이나 쌓인다 폭설이다
당분간은 두절이다
우뚝한 굴뚝, 은색의 바퀴들에
그렇다, 무서운 이 시대의 속도에 치여
㉢내 몸과 마음의 서까래
몇 개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쓰러져 숨 쉬다 보면
실핏줄 속으로 모래 같은 것들 가득
고인다 산성 눈 펑펑 내린다
㉣자연은 인간에 대한
기다림을 아예 갖고 있지 않다
펄펄 사람의 죄악이 내린다
하늘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이다

- 이문재, <산성눈 내리네>

① ㉠: 밝고 활기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표상한다.

② ㉡: 이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욕망이 드러난다.

③ ㉢: 현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절망이 시각화되어 있다.

④ ㉣: 자연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3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밑줄 친 시구가 시 전체의 환경 오염 인식과 화자의 정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에서 '산성눈'은 겉으로는 하얗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 문명이 낳은 오염과 인간의 죄악을 상징한다. 따라서 개별 시구도 밝음이나 아름다움 자체보다 병든 현실, 파괴되는 내면, 인간에게 닥친 위기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병실'은 질병과 고통의 공간이며, '아이들은 놀다 간다'는 병실 안의 화자와 잠시 놀다 떠나는 아이들을 대비한다. '밝고 활기찬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해석은 시의 병든 현실과 단절·붕괴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병실 안의 화자가 처한 고립과 병든 현실을 병실 밖 아이들의 일시적인 활기와 대비한 표현이다.
② X — ㉡의 '하마터면'과 '말할 뻔했다'는 산성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겉모습을 순간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길 뻔했으나, 그 실체가 오염임을 깨닫고 판단을 거두는 태도를 나타낸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겉보기의 아름다움에 현혹될 뻔한 순간과 그에 대한 경계가 드러난다.
③ O — ㉢은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서까래'가 소리 없이 내려앉는 모습으로 화자의 육체와 정신이 무너지는 상태를 비유한다. 산업 문명의 '무서운 속도'에 치인 화자의 절망과 내적 붕괴가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④ X — ㉣은 자연을 '기다림을 갖지 않는' 존재처럼 표현한 의인법이지만,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오염을 일으킨 인간을 자연이 기다려 주지 않으며 파국이 이미 닥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경고를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①은 '아이들'의 밝은 이미지, ②는 '아름답다', ④는 '참을성'과 '기다림'이라는 낱말만 떼어 해석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시의 중심 맥락은 산성눈으로 상징되는 환경 오염과 그로 인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붕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시구의 사전적 의미만 보지 않고 앞뒤 시구의 정서와 중심 소재의 상징성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하마터면', '뻔했다' 같은 표현은 화자가 그 판단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결국 부정했음을 나타낸다.

암기 포인트

산성눈은 겉은 하얗지만 실체는 오염이며, 서까래의 붕괴는 몸과 마음의 붕괴이다.

NoteBase

문 9. 다음 밑줄 친 관용구가 적절하게 쓰인 것은 몇 개인가?

㉠ 그는 복권에 당첨되어 요즘 배가 등에 붙었다.
㉡ 그 사람은 고지식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한다.
㉢ 그 여자는 활개를 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 우리 엄마는 손이 떠서 일 처리가 빠르시다.
㉤ 손이 맑으면 따르는 사람도 많은 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관용구의 굳어진 뜻이 문장의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용구는 낱말의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굳어진 뜻을 문맥에 적용해야 한다.
㉠ X: '배가 등에 붙다'는 몹시 배가 고프다는 뜻이다. 복권에 당첨되어 형편이 좋아진 상황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굶어서 배가 등에 붙었다'처럼 쓴다.
㉡ O: '입에 발린 소리'는 마음에도 없이 겉치레로 하는 말을 뜻한다. 고지식한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한다는 문맥에 맞는다.
㉢ O: '활개를 펴다'는 팔다리를 쭉 펴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팔다리를 편 채 깊이 잠든 모습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 X: '손이 뜨다'는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다는 뜻이다. '일 처리가 빠르다'와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손이 빨라서 일 처리가 빠르시다'라고 해야 한다.
㉤ X: '손이 맑다'는 재수가 없어 생기는 것이 없거나, 인색하여 남에게 베푸는 품이 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넉넉히 베푸는 뜻으로 고치려면 '손이 크면 따르는 사람도 많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과 ㉢의 2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적절한 관용구는 1개가 아니라 ㉡과 ㉢의 2개이다. ‘1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② O: 적절하게 쓰인 관용구가 ㉡과 ㉢, 모두 2개이므로 맞다.
③ X: 적절한 관용구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3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④ X: 적절한 관용구는 4개가 아니라 2개이다. ‘4개’는 ‘2개’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의 ‘활개를 펴다’를 ‘기를 펴다’라는 비유적 뜻으로만 알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쉽다. 이 관용구에는 ‘팔다리를 쭉 펴다’라는 뜻도 있으므로 잠든 자세를 나타내는 ㉢은 적절하다. 또한 ㉣의 ‘손이 뜨다’는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굼뜨다는 뜻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관용구의 굳어진 뜻을 먼저 바꿔 넣은 뒤 앞뒤 문맥과 모순되는지를 확인한다. 하나의 관용구에 여러 뜻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맥에 맞는 다른 뜻도 함께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배가 등에 붙다=몹시 배고프다, 입에 발린 소리=마음 없는 겉치레 말, 활개를 펴다=팔다리를 쭉 펴다, 손이 뜨다=일이 굼뜨다, 손이 맑다=소득이 없거나 베풂이 인색하다.

NoteBase

문 10. 다음 <보기> 속 화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넓은 도로 위로 투명한 폭포처럼 아지랑이가 끓고 있었다. 그때 내 곁에 서 있던 노인이 내 쪽으로 쓰러졌고 간발의 차이로 나는 그를 피해 비켜섰다. 다갈색 바지에 흰 면 셔츠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는 조짐도 없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조금 전까지 내가 서 있던 자리에 퍽, 하고 머리를 박고 쓰러졌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버스가 당도했고 나는 버스를 탔다.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마침 도착한 버스에 탔다. 그게 다였다. 죄책감을 느껴서 도망을 치고 싶었다거나 뭔가를 계산한 것도 아니었다.
죄책감이라니…… 저 사람이 쓰러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 때문에 저절로 쓰러졌는데 그게 내 탓인가. 쓰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을 떼민 것도 아닌데…… 나 말고도 사람이 더 있었으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쯤 툭툭 털고 일어났을 수도 있다……
- 황정은, <웃는 남자>

①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

② 지나간 일이라도 시비는 가려야 한다.

③ 내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 때문에 괴롭다.

④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군가 구해줄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화자가 겉으로 부정하는 말과 그 말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실제 심리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기 합리화는 자신의 행동에서 생긴 불편함이나 죄책감을 줄이려고 그 행동이 불가피하거나 잘못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는 심리이다. 화자는 노인을 두고 버스에 탄 뒤 '내 탓인가',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다'라고 되풀이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과도한 부정은 오히려 죄책감과 심리적 불편함이 있음을 드러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다'라는 독립적 삶의 원칙은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각자 살 길을 찾는 게 최선'이며, 올바르게는 화자가 쓰러진 노인을 외면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화자는 지나간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상황을 좋게 추측한다. 틀린 표현은 '시비는 가려야 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피하려 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화자는 노인이 쓰러진 일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지만, '죄책감'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여러 이유를 늘어놓는다. 이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자기 합리화로 억누르는 모습이다.

④ X
화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말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내가 위기에 처하면'이며, 올바르게는 쓰러진 노인을 다른 누군가가 도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화자가 직접 '죄책감을 느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③을 고르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을 부정하는 말을 반복하고 '누군가가 조치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태도는 숨은 죄책감의 증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심리는 직접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반복되는 부정·변명·행동의 모순을 함께 살핀다. 감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유를 계속 덧붙이면 그 감정을 의식하고 억누르는 심리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반복되는 부정과 변명은 숨은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를 드러낸다.

NoteBase

문 11. 다음 단어(어휘)의 뜻풀이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갓모: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
㉢ 끌끌대다: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 굼적대다: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인다
㉤ 꼬약대다: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봉죽: 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도와줌
㉦ 안갚음: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 말곁: 남이 말하는 앞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
㉨ 가닐대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울력성당: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함

① 7개
② 8개
③ 9개
④ 10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열 개의 고유어와 관용적 어휘가 각각의 뜻풀이에 맞는지 판별하고, 옳은 항목의 수를 정확히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해미는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이다.
㉡ 갓모는 사기그릇을 만드는 돌림판의 밑구멍에 끼우는 사기로 된 고리이다.
㉢ 끌끌대다는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는 것이다.
㉣ 굼적대다는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는 것이다.
㉤ 꼬약대다는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는 것이다.
㉥ 봉죽은 일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곁에서 거들어 돕는 일이다.
㉦ 안갚음은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다.
㉧ 말곁은 남이 말하는 앞에서 덩달아 참견하는 말이다.
㉨ 가닐대다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다.
㉩ 울력성당은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하는 일이다.
따라서 ㉠부터 ㉩까지 열 항목의 뜻풀이가 모두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뜻풀이가 7개라는 수가 틀렸다. ㉠부터 ㉦까지 모두 옳으므로 올바른 수는 10개이다.
② X — 옳은 뜻풀이가 8개라는 수가 틀렸다. 틀린 뜻풀이가 없으므로 올바른 수는 10개이다.
③ X — 옳은 뜻풀이가 9개라는 수가 틀렸다. 열 항목 가운데 빠지는 항목이 없으므로 올바른 수는 10개이다.
④ O — ㉠부터 ㉦까지 제시된 열 개의 뜻풀이가 모두 옳으므로 10개가 맞다.

오답 포인트

낯선 단어가 많아 익숙하지 않은 뜻풀이 하나를 임의로 틀렸다고 판단하면 9개인 ③을 고르기 쉽다. 특히 '안갚음'을 빚을 갚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해하거나 '울력성당'을 잘못된 말로 오해하는 것이 함정이다. 두 단어는 각각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함'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뜻풀이에서 핵심 의미를 표제어와 하나씩 대응한 뒤 O/X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O의 개수를 센다. '안갚음'처럼 형태만 보고 뜻을 추측하기 어려운 말과 '울력성당'처럼 표기가 낯선 말을 별도 어휘로 정확히 익혀 두면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해미는 바다 안개, 안갚음은 부모 봉양, 울력성당은 떼 지어 협박함이다. 이 문항의 열 뜻풀이는 모두 옳다.

NoteBase

문 12. 다음 글에서 말하는 <발전 기술>의 효과를 전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수소 이용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발전(發電)이다. 연료 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연소 과정이나 구동 장치가 필요 없으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다. 연료 전지 발전 외에 핵융합 발전도 수소를 이용한 대표적 발전 기술이다.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는 것을 응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 발전과 연료 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①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다.

②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보다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④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에 제시된 연료 전지 발전과 핵융합 발전의 특징을 근거로 각 효과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연료 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며, 연소 과정이나 구동 장치가 필요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소의 융합을 이용하며, 원자력 발전보다 방사능 유출 위험이 거의 없다. 두 기술은 수소를 이용하는 발전 기술이지 수소 자체의 생산 기술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연료 전지는 연소 과정이 필요 없고, 두 발전 기술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 감소를 전망할 수 있다.
② O — 글에서 연료 전지는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라고 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효과를 전망할 수 있다.
③ O — 핵융합 발전은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 위험이 거의 없으므로, 실용화되면 더 안전한 삶에 이바지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이다. 글의 발전 기술은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을 낮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올바르게는 '수소를 이용한 발전 기술의 실용화로 에너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고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수소를 이용하는 발전'과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앞의 직접 근거인 수소 생산 비용 절감은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과를 묻는 선지는 지문에 제시된 기술의 작동 방식과 장점을 원인으로 삼아 추론한다. 지문이 설명한 대상이 '수소의 이용'인지 '수소의 생산'인지 구별하면 범위를 벗어난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연료 전지·핵융합은 수소 이용 기술이며, 수소 생산비 절감 기술은 아니다.

NoteBase

문 13.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등산 상황의 각 요소가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에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이 비유에서 길잡이는 지도자, 길잡이가 제시하는 방향은 정책, 함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구성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향을 잘못 가리킴'은 잘못된 정책을, '혼자 가 버림'은 구성원을 이끌지 않는 리더십 부재를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은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상황이므로 리더십 부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한 채 내린 결단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틀린 표현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이며, 올바르게는 ‘길잡이가 올바른 방향을 알고 책임 있게 이끌어야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이다.

② X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와 ‘말이 많으면 결정할 수 없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충돌이나 의사 결정의 지연을 나타낼 뿐, 한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함께 대응시키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이며, 올바르게는 ‘길잡이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이다.

③ O
‘방향을 잘못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을 뜻하고, ‘혼자 가 버리는 것’은 구성원을 책임지고 이끌 지도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는 내용까지 정책 실패의 결과와 자연스럽게 대응한다.

④ X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봉우리에 오르는 경쟁’을 등산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돕는 리더십이나 정책 방향과 관계가 없다. 틀린 표현은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이며, 올바르게는 ‘길잡이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용기 있는 결단’이나 ②의 ‘사공이 많으면’처럼 리더십과 관련 있어 보이는 말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문제의 두 요소인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이 각각 비유 속 행동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유 문제에서는 원래 개념과 비유 속 요소를 하나씩 짝지어 본다. 이 문항에서는 ‘정책=길잡이가 가리키는 방향’, ‘리더십=길잡이가 사람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행동’으로 대응시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춘 ③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길잡이의 방향은 정책, 길잡이의 인솔은 리더십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고전 시가의 밑줄 친 시어 중, <보기>의 ㉠이 드러난 것으로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에 못 생각하여 詩書를 일삼도다.
중간에 망녕되어 名利를 바라도다.
物外에 風月江山이 내 분인가 하노라.

經綸을 내 알더냐 救世할 이 없을러냐.
太平時世는 얼마나 멀었는가.
필부의 爲國忠心을 내어 뵐 데 없어라.
- 이중경, <어부별곡(漁夫別曲)>

<보기>
고전 시가 유형의 하나로서 「어부가」는 처사들이 어부를 은일지사의 표상으로 여겨, 스스로를 어부로 자처하며 자신의 심리적 대리인으로 조형되는 가짜 어부, 즉 가어옹(假漁翁)의 생애를 노래한 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부가」는 전형적인 사대부의 노래이다. 사대부의 문학 전통에 있어서 가어옹을 통한 어부의 형상은 사대부의 유교적 세계 인식과 심미 의식을 탐색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즉, ㉠현실 속에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과 한적한 강호 생활의 동경이라는 양면성이 함께 드러난다.

① 名利
② 物外
③ 經綸
④ 救世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보기>의 ㉠은 현실에 참여하여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욕망이다. 시어가 현실적 공명과 경세의 뜻을 나타내는지, 현실을 벗어난 강호 은일의 뜻을 나타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현실 참여 지향은 명예와 공적 성취를 추구하거나 세상을 다스리고 구제하려는 태도이다. 반면 강호 은일 지향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고자 하는 태도이다. 이 작품에서는 두 지향이 함께 나타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名利(명리)'는 명예와 이익을 뜻한다. 화자가 한때 이를 바랐다는 것은 세속 현실에서의 성취를 추구한 태도이므로 ㉠과 연결된다.
② X — '物外(물외)'는 세속을 벗어난 곳을 뜻한다. '物外에 風月江山이 내 분인가'는 현실에서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욕망이 아니라 자연 속 강호 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이다. '物外'를 현실 참여의 공간으로 보는 것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속세 밖의 은일 공간으로 이해한다.
③ O — '經綸(경륜)'은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나 그 포부를 뜻한다. 경륜을 말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이상을 펼치려는 태도이므로 ㉠이 드러난다.
④ O — '救世(구세)'는 세상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세상을 바로잡고 태평한 시대를 이루려는 현실 참여 의지가 직접 드러나므로 ㉠과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物外'도 한자어이고 주변에 '風月江山'이 이어져 의미를 막연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物外'는 세상 밖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므로 현실 참여가 아니라 강호 은일의 동경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어를 현실 안과 현실 밖의 두 방향으로 나눈다. 명리·경륜·구세처럼 공적 성취와 세상 경영을 뜻하면 현실 참여 지향이고, 물외·풍월강산처럼 속세를 떠난 자연을 뜻하면 강호 은일 지향이다.

암기 포인트

명리·경륜·구세는 현실 참여, 물외·풍월강산은 강호 은일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전자 문서에 <u>決裁</u>를 받아 합격자를 확정하겠습니다.

② 잘못을 저질렀다면 궁색한 <u>辨明</u>보다 정직한 시인이 현명한 대응이다.

③ 그는 언제나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u>分類</u>할 줄 안다.

④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u>再考</u> 바랍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의 정확한 뜻을 문장 속 대상과 결합 관계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분류'와 '분별'의 차이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결재(決裁)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일이다.
변명(辨明)은 잘못이나 책임에 관하여 사정이나 까닭을 들어 해명하는 말이다.
분류(分類)는 공통된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는 일이고, 분별(分別)은 서로 다른 것을 가려 구별하는 일이다.
재고(再考)는 어떤 일을 다시 생각하는 일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전자 문서를 승인받아 합격자를 확정한다는 문맥이므로 '결재(決裁)를 받다'가 적절하다.
② O — 잘못을 저지른 뒤 궁색하게 까닭을 대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변명(辨明)'이 문맥에 맞는다.
③ X — '분류(分類)'는 대상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종류별로 나눈다는 뜻이므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틀린 표현은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분류하다'이며, 올바르게는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분별(分別)하다'이다.
④ O — 받아들일 수 없는 계획을 다시 생각해 달라는 문맥이므로 '재고(再考) 바랍니다'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의 '분류'와 '분별'은 모두 대상을 나눈다는 느낌을 주지만 기준이 다르다. 종류별로 묶는 것은 분류이고, 옳고 그름처럼 차이를 가려 판단하는 것은 분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문장에 넣어 본다. '종류별로 나누다'이면 분류, '차이를 가려 판단하다'이면 분별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분류는 종류별로 나눔, 분별은 옳고 그름을 가림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밑줄 친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은?

① 나는 그날의 놀라운 사건을 쉬이 잊을 수가 없다.
②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주구장창 달리기만 하였다.
③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보니 딴은 그럴 듯도 했다.
④ 김 과장은 일이 생기면 재까닥 처리해 버리곤 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주 쓰이는 부사 가운데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말이다. 실제 대화에서 널리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문항에서는 '주구장창'과 규범 표기 '주야장천'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쉬이'는 '어렵거나 힘들지 아니하게'라는 뜻의 표준어이다. '놀라운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없다'는 문맥에 알맞다.
② X — '주구장창'은 표준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 '주구장창'은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라는 뜻의 표준어 '주야장천'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주야장천 달리기만 하였다'가 규범에 맞다.
③ O — '딴은'은 남의 행위나 말을 긍정하여 그럴듯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표준어 부사이다. 말을 들어 보니 그럴듯했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O — '재까닥'은 어떤 일을 시원스럽게 빨리 해치우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준어이다. 일이 생기면 곧바로 처리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오답 포인트

'주구장창'은 일상에서 흔히 들리기 때문에 표준어처럼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규범 표기는 '주야장천'이며, 사용 빈도와 표준어 여부를 혼동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익숙하게 들리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응하는 규범 표기를 떠올린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라는 뜻이면 '주야장천'이 표준어이다.

암기 포인트

밤낮으로 계속은 '주야장천', '주구장창'은 비표준어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① ㉠: 현실 상황을 따르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② ㉡: 현실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③ ㉢: 현실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이 드러난다.

④ ㉣: 현실에 좌절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어와 행동에 담긴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를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이 시는 영화 시작 전 모두가 애국가를 듣고 다시 자리에 앉는 장면과, 새들처럼 억압적인 현실 밖으로 떠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대비한다. '일제히 일어나'와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 획일적인 현실 순응을, '낄낄대면서·깔쭉대면서'는 그 현실을 비웃는 냉소를, '날아갔으면'은 현실 탈출의 소망을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의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집단의 의례에 맞추어 행동하는 모습이므로 현실 상황을 따르는 태도가 나타난다.
② X — ㉡의 '낄낄대면서·깔쭉대면서'는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을 비웃고 조롱하는 냉소적 태도를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극복하려는 의지'이며, 올바르게는 '현실에 대한 냉소와 조소가 드러난다'이다.
③ O — ㉢의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은 현재의 억압적인 현실을 떠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직접 드러낸다.
④ O — ㉣의 '주저앉는다'는 단순히 자리에 앉는 행동에 좌절과 체념의 의미를 겹쳐 놓은 표현으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②의 웃음 표현을 능동적인 저항이나 극복 의지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낄낄대면서·깔쭉대면서'에는 현실에 대한 비웃음이 담겨 있지만, 실제 행동은 다시 자기 자리에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므로 현실을 극복하는 실천적 의지로 볼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시어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 행동의 결과까지 연결한다. 소망이나 조소가 나타나더라도 화자가 현실을 바꾸는 행동으로 나아갔는지를 확인하면 '비판적 인식'과 '극복 의지'를 구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낄낄·깔쭉'은 현실에 대한 냉소, '날아갔으면'은 탈출 소망, '주저앉는다'는 좌절과 체념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외래어 표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ambulance(앰뷸런스)
㉡ leadership(리더십)
㉢ vision(비전)
㉣ catalog(카탈로그)
㉤ barbecue(바베큐)
㉥ outlet(아웃렛)
㉦ carol(캐럴)
㉧ running(러닝)
㉨ symbol(심벌)
㉩ jacket(재킷)

① 7개
② 8개
③ 9개
④ 10개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영어에서 온 외래어의 관용 표기가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표준 표기를 판별하고, 옳은 항목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래어는 원어의 철자를 그대로 한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발음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특히 barbecue는 철자에 이끌려 '바베큐'로 적기 쉽지만 표준 표기는 '바비큐'이다.

NoteBase

제시어 판단

㉠ ambulance－앰뷸런스: O
㉡ leadership－리더십: O
㉢ vision－비전: O
㉣ catalog－카탈로그: O
㉤ barbecue－바베큐: X. 틀린 표현은 ‘바베큐’이며, 올바른 표기는 ‘바비큐’이다.
㉥ outlet－아웃렛: O
㉦ carol－캐럴: O
㉧ running－러닝: O
㉨ symbol－심벌: O
㉩ jacket－재킷: O
따라서 옳은 표기는 ㉠, ㉡, ㉢, ㉣, ㉥, ㉦, ㉧, ㉨, ㉩의 9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표기는 7개가 아니라 9개이다.
② X — 옳은 표기는 8개가 아니라 9개이다.
③ O — ‘바베큐’만 잘못되었으므로 옳은 표기는 모두 9개이다.
④ X — 10개가 모두 옳은 것이 아니다. ‘바베큐’는 ‘바비큐’로 고쳐야 하므로 옳은 표기는 9개이다.

오답 포인트

㉤의 ‘바베큐’를 익숙한 표기라는 이유로 옳다고 판단하면 10개를 고르게 된다. 철자 barbecue의 가운데 부분을 ‘베’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표준 표기 ‘바비큐’로 적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제시어를 표준 표기와 하나씩 대조해 잘못된 항목을 먼저 표시한 뒤, 전체 항목 수에서 그 개수를 뺀다. 이 문항에서는 10개 중 ‘바베큐’ 하나만 틀리므로 9개가 된다.

암기 포인트

barbecue는 ‘바베큐’가 아니라 ‘바비큐’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요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② 집에서만이라도 제발 편히 쉬어라.
③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졌다.
④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약하지만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조사는 앞말과 붙여 쓰며, 조사가 연달아 결합해도 모두 붙여 쓴다. 어미도 용언의 어간에 붙여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간'은 '세대와 세대 사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틀린 표현 '세대간'은 '세대 간'으로 고친다.
② O — '집에서만이라도'는 '집'에 조사 '에서', '만', '이라도'가 이어진 형태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③ O — '했는데도'의 '-는데도'는 앞의 용언 '하다'의 활용형에 붙는 말이므로 띄지 않는다.
④ O — 목적을 나타내는 '위해서'에 '입니다'가 결합한 '위해서입니다'는 한 덩어리로 붙여 쓰는 것이 바르다.

오답 포인트

①의 '간'을 조사처럼 보아 붙여 쓰기 쉽다. 그러나 여기서 '간'은 두 세대 사이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다. 반대로 ②는 여러 조사가 겹쳐 길어 보여도 조사끼리는 띄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말을 조사·어미와 의존 명사로 먼저 구분한다. 조사와 어미는 붙이고, '사이'라는 뜻의 의존 명사 '간'은 앞말과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사이를 뜻하는 '간'은 띄어 쓴다: 세대 간, 국가 간, 이웃 간.

NoteBase

문 20. 다음 밑줄 친 관용구(속담)의 뜻풀이가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말소리를 입에 넣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게 웅얼웅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는 의미의 관용구

② 그는 바늘뼈에 두부살이다: '매우 연약(軟弱)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는 속담

③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 '힘든 일을 억지로 한다.'는 의미의 속담

④ 파방에 수수엿 장수: '기회를 놓쳐 별 볼 일 없다.'는 의미의 속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관용구와 속담은 낱말의 표면적 뜻이 아니라, 표현 전체가 관습적으로 나타내는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핵심 개념

관용구는 둘 이상의 말이 굳어져 각 낱말의 뜻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속담은 오랜 생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비유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관습적 표현이다. 이 문항에서는 각 표현이 그 비유적 의미와 맞게 연결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말소리를 입에 넣다'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입안에서 웅얼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옳다.

② O
'바늘뼈에 두부살'은 바늘처럼 가는 뼈에 두부처럼 힘없는 살이라는 비유로, 몸이 매우 연약한 사람을 이르므로 풀이가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힘든 일을 억지로 한다'이다.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는 자신의 털로 신을 만들 만큼 온 정성을 다하여 입은 은혜를 꼭 갚겠다는 뜻이다.

④ O
'파방에 수수엿 장수'는 장이 끝난 뒤에야 수수엿을 팔러 온 장수처럼 때를 놓쳐 아무 소용이나 성과가 없게 된 경우를 이르므로 '기회를 놓쳐 별 볼 일 없다'는 풀이가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털을 뽑아 신을 만드는 일이 힘들다는 표면적 모습 때문에 '힘든 일을 억지로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이 속담의 중심은 고생 자체가 아니라, 극진한 정성으로 은혜를 갚는 보은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장면이 강조하는 핵심을 찾는다. '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에서는 털을 뽑는 고통보다 신을 만들어 줄 정도의 정성과 보은이 판단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털신은 보은, 파방은 때를 놓침, 바늘뼈·두부살은 연약함이다.

NoteBase